체계적인 명상지도로 불교 대중화 앞장

행복선 명상상담센터, 명상상담가 2급 수료식

수강생 14명 자격증 수여
100시간 수행 · 교육 이수
사성제, 대념처경 명상법
생활 활용한 기술 습득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 행복선(禪)명상상담센터는 9월 11일 미타선원 설법전에서 행복선 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복선 명상상담가들이 탄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날짜가 연기되고 다 모이지도 못한 채 조촐히 진행됐지만 이들이 보여준 불교변화는 확실했다. 명상은 삶의 무거운 고(苦)를 어떻게 풀어 해결하는 걸까? 그 해답을 제시한 120일의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 2급 과정이 마무리 됐다.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 행복선(禪)명상상담센터(센터장 하림)는 9월 11일 미타선원 설법전에서 행복선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자격증 수여식에는 센터장 하림 스님을 비롯해 홍순하 교육팀장, 정혜정 총괄팀장과 수료생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자격증 수여자는 총 18명의 수강생 가운데 14명이다. 교육과정은 총 12강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집중수련은 2차로 나눠 실시됐다. 자격증을 수여 받은 학생들은 100시간 이상의 명상수련 경력을 보유했다. 특히 이론과 실습 36시간, 집중수련 20시간, 집중수행 30시간, 일일수행 14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쳤다.

수여식은 자격증 전달식에 이어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에 동참한 수료생들은 삶 속에 문제를 직면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며 명상의 참된 힘을 체험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란 불자는 "성격이 급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일도 해버리는 편이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 곳이 불편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난 뒤 느긋해진 자신을 보았다"고 말했다.

설춘희 불자는 "명상 과정을 통해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만나는 도반들에게 명상의 이익을 설명하고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는 불교의 명상을 철저하게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 심리극 혹은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지만 큰 틀에서는 부처님의 사성제와 대념처경의 명상법이 제시된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는 초기불교 대념처경을 통해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불교에서 강조하는 반야심경을 절묘하게 적용했다.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성제를 명상이라 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오온이 사라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空)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센터장 하림 스님은 "현대인들이 힘들면 정신병원이나 상담을 받으러 간다. 사실 이것은 스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며 "스님들이 마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기존 불교명상의 단점 중 하나는 지나치게 불교색이 짙어 일반인에게 제시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명상법을 현대화 해 제시한 시도라 의미가 크다.

수강생 가운데 이영애 씨는 "개인적으로 불자는 아니다"며 "하지만 미타선원에서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은 접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종교색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명상을 제시했고 그 명상법이 현재 배우고 있는 비폭력대화 상담기법과도 비슷한 점이 많아 받아들이기가 편했다"는 것이다.

센터장 하림 스님은 명상도 '현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금 현대인에게 어떻게 잘 전달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숙제처럼 여겨왔다"며 "불교에서 자주 듣는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현대에 맞게 잘 적용해 푸는데 10년이 넘는 고민과 연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선 명상상담센터는 1기 자격과정을 9월 18일부터 시작했다. 행복선 명상센터서 1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하자 이틀 만에 접수 인원이 모두 마감됐다.

행복선 명상센터는 "명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현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명상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소사 설선당 · 요사, 보물 승격 학술대회 '눈길'

지역 청소년 위한 장학금도 기탁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안군청이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9월 11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존과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수영 수석연구원(호남문화재연구원)이 '내소사의 종교적, 역사적 의의', 이향미 교수(광주여대. 문화재위원)가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건축적 특성', 이상희 교수(목원대.문화재 전문위원)가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9월 11일 부안군청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남해경 교수(전북대. 문화재 위원)를 좌장으로 국립익산박물관 최홍선 학예연구실장, 전북대 김윤상 교수(문화재 전문위원), 전주비전대 박용신 교수(문화재 전문위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축사에서 "내소사는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사찰이다. 설선당과 요사는 1640년에 청민 대사가 지은 것으로 회(回)자형의 특이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물승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소사는 학술대회에 앞서 부안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불자들은 부안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진성 스님은 9월 11일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 신도회장 성불화 보살, 신도회 총무 정법행 보살, 관음회 총무 능인행 불자들과 함께 부안군청을 방문해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 달라며 나누미 근농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성립돼 현재 170억여원 기금을 바탕으로 연간 약 11억원의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범어사 〈삼국유사〉, 국보 지정서 수여받아

9월 17일 보제루서 전달식…'국보 306-4호'로

금정총림 범어사가 소장 〈삼국유사〉 권4~5에 대한 국보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2003년 4월 국보로 지정된 서울 규장각 〈삼국유사〉보다 118년 빠른 희귀자료로 사찰 소장 〈삼국유사〉로는 유일하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17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삼국유사〉 국보지정서 전달식<사진>'을 열고 문화재청과 부산시로부터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초하루 법회 가운데 개최됐으며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 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축사 및 지정서 전달, 주지 경선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정서 전달 행사를 축소해 아쉬움이 있다. 추후 이를 널리 알리는 기념행사를 진행해 〈삼국유사〉 국보지정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뛰어난 문학사의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이번 국보 지정은 부산시의 자랑"이라고 축하했다.

범어사 〈삼국유사〉 권4~5의 국보 지정은 부산사찰 소장 문화재 중 처음이다.

이번 범어사 〈삼국유사〉의 국보 지정에는 주지 경선 스님의 노력이 있었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개관 준비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개관하며 〈삼국유사〉가 보물로 지정됐고, 이후 영인본 제작과 전적실 리모델링 등이 이뤄졌다. 범어사는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협력해 〈삼국유사〉 목판사업도 진행했다. 당시에 나온 연구결과는 조선중기본 오탈자 및 오류를 보완하는 원천자료로 활용됐으며, 이번 국보 지정의 원동력이 됐다.

범어사는 향후 〈삼국유사〉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신축 불사 중인 성보박물관 완공 시 〈삼국유사〉특별전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 스님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뿐만 아니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 교육, 홍보행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기반이 될 성보박물관 불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쿠무다 힐링빌리지 신축불사 후원

9월 15일 미소원 법당서 후원금 5000만원 전달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 일번지 미소원이 통 큰 보시금을 전달하며 불사에 동참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9월 15일 미소원 법당에서 쿠무다 복합문화공간 명상센터 불사 기금 전달식<사진>을 개최했다.

후원금은 총 5000만원이며, 미소원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 마련을 위해 1인 100만원 씩 총



50명의 미소원 회원들이 동참했다. 장유정 이사장이 다라니 3000독 기도 후 불사후원을 발원한 것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참 회원들은 '시대에 맞는 포교 방향에 동참 할 수 있어 기쁘다'는 환희심으로 동참했으며 전달식에서 '가치 있는 일에 최우선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소원에 따르면 회원 중에는 불사 후원금 동참을 위해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팔찌를 손수 팔거나 월급을 받은 후 생활비를 아끼고 불사 지원금 부터 먼저 입금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열정이 컸다.

장유정 이사장은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해 10일 만에 33명으로 늘어나더니 금방 50명으로 늘어났다"며 "주석 스님의 원력이 너무나 커 불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현대적으로 시대에 맞는 포교에 마음이 동해 너도나도 동참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소원은 불사 후원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유정 이사장은 "후원금 전달식 후에도 꾸준히 동참자가 늘고 있다. 스님의 원력을 응원하는 불사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복합문화예술법인 쿠무다는 새로운 불교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문화 도량 불사를 진행 중이다.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쿠무다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동다송' 특강 연다

매주 화요일 총 6회… 9월 29일~11월 3일

금정총림 범어사가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 스님의 〈동다송〉 특강을 개최하고 고요한 찻 자리에 숨겨진 의미를 밝힌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동다송〉 특강을 마련한다. 〈동다송〉은 조선 후기 초의 선사가 작성 한 것이다. 정조의 부마인 홍현주의 부탁으로 작성됐으며 송(頌) 형식으로 적은 송시 17수이다. '송시'는 시(詩)에 공덕을 담아 찬탄하는 형식이다. 〈동다송〉에는 차의 의미와 미덕, 그리고 선열(禪悅)까지 담고 있다.

강의를 담당할 원학 스님은 〈동다송〉과 일찍이 인연이 깊다. 27여년 전 처음 〈동다송〉과 접하고 초의문화제를 창립 해 다도정신을 널리 알려왔다. 이후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를 출판해 〈동다송〉에 담긴 의미를 해석했다. 원학 스님은 초의 선사가 직접 쓴 '일지암 필사본'을 모본으로 원문 번역에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해석으로 접근해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원학 스님은 서울 조계사,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문화 예술계 활동으로 불교미술제 우수상 및 국전 동아미술제서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해인사 박물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강 신청은 불자 및 다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하며 수강료는 5만원(교재비 별도)이다. 051)866-727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야문화진흥원, 코로나 극복 강좌 개최

예술인 후원 및 교육 힐링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 ·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역사 · 문화 체험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10월과 11월 김해 일대에서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예술인 및 강사를 후원하고 커져가는 불안감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문화 예술을 통해 김해 지역에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가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민요 △민속춤 △시 및 마음공부 △밸리댄스 △관악기 등이다. 신청기간은 9월 14일~29일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가야문화진흥원은 효와 가야를 주제로 개최한 '제4회 청소년 창작미술 경연 및 글짓기(운문 · 산문) 대회' 입상자를 발표했다. 입상은 창작미술 부문 최우수 김도현(율하고 1) 외 3명이며 글짓기 부문은 이윤서(고양예술고 2) 학생 외 3명이 수상했다.

이사장 송산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다"며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도구를 잘 활용해 가야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55)327-195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각사, 일연 스님 추모 다례재

군위 인각사(주지 정화)는 8월 29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1주기 추모다례재 및 2020년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를 경내 국사전에서 거행했다. 일연학연구원이 주관하고 인각사가 주최한 추모다례재와 학술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과 종단의 방역수칙 강화로 인각사 주지 정화 스님과 군위 지장선원 선원장 혜봉 스님 , 심춘자 인각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인각사 주지 정화 스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서로서의 〈삼국유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례재에 이어 '2020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에는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를, 일연학연구원 이사장상에는 양혜원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군위군수상에는 박다원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사가 수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